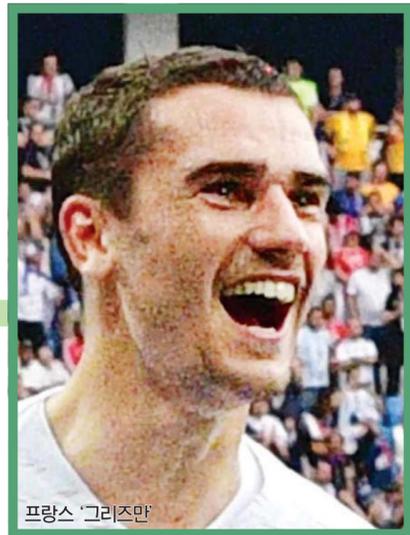


“우승까지 두 정거장 니가 먼저 가라, 집에”

프랑스 vs 벨기에·잉글랜드 vs 크로아티아 ‘유럽전쟁’
‘빅4’ 독일·브라질·스페인·아르헨티나 없는 첫 4강
11일·12일 새벽 3시... 안 보면 후회할 세기의 대결



프랑스 '그리즈만'



벨기에 '브라위너'

VS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컵을 향한 '유럽전쟁'이 펼쳐진다. 승부차기 혈투 끝에 막자를 탄 크로아티아를 끝으로 러시아 월드컵 결승 진출을 다룬 4개팀이 확정됐다. 유럽의 아성에 도전하던 남미의 두 팀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각각 8강에서 벨기에와 우루과이에 발목을 잡히면서 프랑스, 벨기에,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등 유럽팀의 잔치가 됐다.

◇프랑스 2-0 우루과이

'우승 후보'들이 잇달아 침몰한 가운데 프랑스는 '남미의 복병' 우루과이를 꺾고 12년 만에 준결승에 올랐다.

16강에서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4-3으로 제압한 프랑스는 19세의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를 오른쪽 날개에 배치하고, 올리비에 지루를 왼쪽으로 내세워 공세에 나섰다.

경기 흐름을 주도하던 프랑스는 전반 막바지에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0의 균형을 깼다.

그리즈만이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고, 라파엘 바란이 머리로 방향을 틀어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의 시작점이었던 그리즈만이 두 번째 골은 직접 책임졌다. 후반 16분 역습 상황에서 그리즈만이 왼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페르난도 무슬레라가 편칭을 시도했지만 공은 오히려 우루과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우루과이는 끝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4강 티켓을 프랑스에게 넘겨줬다. 간판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게 우루과이에는 두고두고 아쉽게 됐다.

◇벨기에 2-1 브라질

'황금세대' 벨기에에는 브라질의 네이마르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32년 만에 준결승의 위업을 이뤘다.

일본전 극적인 3-2역전승의 기세를 이은 벨기에에는 '삼바 군단'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과 케빈 데브라위너의 추가 골을 앞세워 2-1로 승리를 거뒀다.

FIFA 랭킹 2위 브라질과 3위 벨기에가 맞붙는 '미리 보는 결승'의 초반 흐름은 브라질이 주도했지만 자책골이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13분 벨기에의 코너킥 상황에서 공을 다투던 브라질의 페르난지뉴를 맞은 공이 브라질 골대로 향했다.

벨기에에는 전반 31분 속공으로 추가골을 만들었다. 자기 진영 중원에서 공을 잡은 로멜루 루카쿠가 하프라인을 돌파한 뒤 오른쪽에서 쇄도한 데브라위너에게 패스를 했다. 데브라위너는 오른쪽 중거리 슈팅으로 2-0을 만들었다. 벨기에에는 후반 21분 브라질의 헤나투 아우구스투에게 골을 내줬지만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했다.

브라질의 간판 골잡이 네이마르는 '유효슈팅 0'을 남기고 메시(아르헨티나)·호날두(포르투갈)에 이어 러시아 월드컵 무대에서 퇴장했다.

◇잉글랜드 2-0 스웨덴

잉글랜드는 스웨덴의 철벽 수비를 뚫고 28년 만에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축구 중가'의 자존심을 살렸다.

잉글랜드의 정교한 세트피스는 8강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콜롬비아와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 징크스'를 깬 잉글랜드는 전반 30분 나온 해리 매과이어의 선제골로 분위기를 살렸다. 애슐리 영이 뛰어난 코너킥을 헤딩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견고하던 스웨덴 수비를 흔들었다.

후반 14분에는 사실상 승부의 추를 기울인 추가골이 나왔

다. 델리 알리가 제시 링가드가 뒤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받아 헤딩으로 두 번째 골을 넣었다.

후방에서는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헤트트릭'과 다름없는 선방 퍼레이드로 잉글랜드의 승리를 지휘했다. 스웨덴 빅토르 클라손과 마르쿠스 베리 등이 멋진 슈팅을 날리기도 픽포드를 뚫지 못하면서 패배의 아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러시아 2-2 크로아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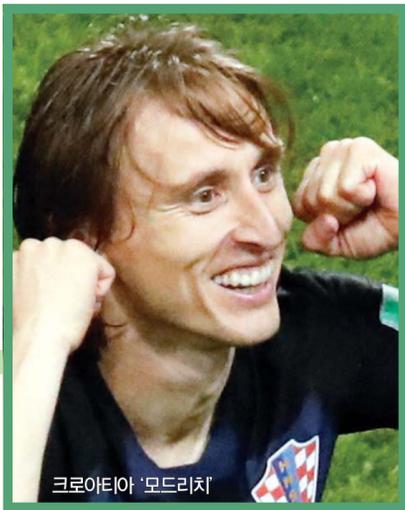
크로아티아는 '늦각이 주전 골키퍼' 다니에 수바시치를 주인공으로 해 4강 진출 드라마를 썼다.

크로아티아는 8강전에서 개최국 러시아를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꺾으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준결승 진출을 이뤘다.

정규시간 90분을 1-1로 마무리한 두 팀은 연장 전후반에도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마지막까지 피 말린 승부를 이어갔다.

러시아는 첫 키커 표도르 스몰로프가 실축으로 머리를 감쌌다. 크로아티아도 두 번째 키커 마테오 코바치치가 골을 넣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세 번째 키커 마리오 페르난지스의 실축이 나왔다. 3-3에서 크로아티아의 이반 라키티치가 마지막 키커로 섰다. 부담감을 이겨낸 라키티치는 시원하게 골망을 가르면서 치열했던 8강 전쟁의 종료를 알렸다.

조별리그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전을 무실점으로 막았던 골키퍼 수바시치는 덴마크와의 16강전 선방쇼에 이어 8강 승부차기에서 상대 팀의 슈팅 2개를 막아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크로아티아 '모드리치'

VS



잉글랜드 '케인'

잉글랜드 4강 이끈 '괴짜 리더십'

사우스게이트 감독, 군사훈련·슈퍼볼 참관 등 팀플레이 교육 성과

'축구중가' 잉글랜드는 국제 대회 때마다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자국 프로축구리그인 프리미어리그를 통해 스타플레이어를 꾸준히 발굴했지만, 이들이 모인 축구대표팀은 조직력 문제를 드러내며 번번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선 16강 진출에 그쳤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16강에선 총 인구 34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에 패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잉글랜드 대표팀을 살린 건 최악의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은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었다.

그는 전에 없던 파격적인 행보를 펼쳤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을 앞두고 스코틀랜드 출신 앨런 러셀 코치를 고용해 공격 전담 코치라는 직함을 내줬다. 러셀 코치는 개별 선수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해 공격수들과 개별 훈련을 하며 팀 색깔을 조금씩 입혔다.

또 전문화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을 군사훈련소에 입소시켜 극기훈련을 받게 하기도 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울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들과 함께 휴탕물에 들어가는 등 행동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파격적인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미국 프로농구(NFL)와 미국 프로농구(NBA) 전술을 연구해 세트피스를 단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유기적인 움직임과 공간 창출 능력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선수들에게 이식했다.

일련의 과정은 '퐁카루 팀' 잉글랜드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개인기에만 가뒀던 잉글랜드는 팀플레이를 중심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잉글랜드는 러시아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을 무패로 통과했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에서 3승 1무를 거두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잉글랜드의 새로운 힘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더욱 빛났

8강서 멈춘 '꼴찌의 반란'

FIFA 70위 러시아, 20위 크로아티아와 연장 혈투 끝 승부차기 3-4 패

크로아티아 마지막 승부차기 키커인 이반 라키티치가 찬 공이 러시아의 골망을 흔들며 길고 치열했던 승부가 끝나자 러시아 소치 피시트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러시아 관중은 한 동안 말을 잃었다.

잠시 망연자실해 있던 팬들은 그라운드에 누운 선수들을 향해 오랫동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개최국 러시아가 몰고 온 돌풍은 8강에서 끝이 났다.

러시아는 8일 크로아티아와의 8강 대결에서 전후반 90분까지 1-1, 연장전까지 2-2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했다. 1966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준결승 진출을 노렸던 러시아는 월드컵 도전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0위의 러시아는 본선 32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랭킹으로 월드컵을 주최해야 하는 처지였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꼴찌의 반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5-0 대승을 거두며 시작됐다. 이집트에도 3-1로 승리하며 1986년 이후 32년 만에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정점은 16강 스페인전이었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다니던 러시아는 전반 41분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어낸 후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48년 만의 8강 진출에서 멈췄지만 FIFA 랭킹이 50계단이나 높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투혼을 발휘한 러시아에 관중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연합뉴스

광주 FC, 홈에서 부산 잡고 3위 간다

K리그2 오늘 18R...3위 부천·4위 부산과 승점 3점차

프로축구 광주 FC가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순위싸움에 불을 붙인다.

광주는 9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2 18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 맞대결을 펼친다.

휴식기를 끝낸 광주는 7월 1일 아산전을 시작으로 4일 서울이랜드 그리고 부산까지 홈 3연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아산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는 4일에는 나상호, 김정환, 김민규의 연속골로 3-0의 화려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3위 부천과 4위 부산이 승점 3점 차로 가시권에 있다.

광주는 15라운드 순연 경기로 치러진 서울이랜드 경기까지 연달아 세 경기를 치르고 있다. 체력이 순위 싸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진섭 감독은 "로테이션 자원이 적어 선수들이 체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정비하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최근 6경기에서 1승 5무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지난 라운드 대전과의 승부에서는 경기 막판 동점 골을 넣으며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 내는 등 집중력도 뛰어나다. 여기에 최근 외국인 공격수 맥도날드와 발부르트를 영입하는 등 공격력도 보강했다.

하지만 수비라인에서 문제점을 보이는 만큼 광주는 불붙은 공격으로 부산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홈 3연전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우스게이트 감독

다. 투박한 롱패스 전술 대신 유기적인 빌드업과 빠른 공격 전개로 승승장구했다.

이번 대회에서 총 11골을 터뜨렸는데, 이 중 8골을 세트피스 상황(페널티킥 포함)에서 완성했다. 특히 수비 조직력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스웨덴을 상대로 세트피스 득점을 뽑아내며 2-0으로 완승했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4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